# 재개관 하는 광주문예회관, 신년 프로그램 '풍성'

### 8개 시립예술단, 연간 공연 계획 발표

### 광주시향, 오티움·특별연주회 등 마련
### 발레단, 5·18 창작발레 'Divine' 첫 선
### 오페라단, '박하사탕' 전막공연 '주목'

올해 개관 32주년이자 대·소극장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을 앞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올 한 해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2023년 광주시립예술단 신년 프로그램 및 연간 공연을 1일 공개했다.

교향악단, 발레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창극단, 국악관현악단, 극단, 오페라단 등 8개 시립예술단은 공연장 재개관에 맞춰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단, 현장 공감 등 시민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연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젊은 명장 홍석원 예술감독과의 세 번째 시즌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클래식 스타들과 함께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올해 시즌을 채울 예정이다. 총 11회로 구성된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오티움 콘서트, 특별연주회로 구분되며 각 공연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및 협연자 선정으로 시즌 시작 전부터 기대감을 높인다.

광주시립발레단은 7월1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 및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창작발레 'Divine'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Divine'은 광주시립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첫 공연은 오는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해설이 있는 발레 'Voice of Spring'이다. 2월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 일환으로 'Spring Water', '해적', '코펠리아' 등을 박경숙 예술감독의 해설과 함께 갈라로 선보인다.

광주시립발레단의 장기프로젝트인 발레살롱콘서트는 총 10회 공연한다. 무용수와 관객이 함께 대화하며 발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지난해 총 2회 공연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에도 발레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다양한 발레 작품을 소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5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대극장에서 '지젤' 전막, '호두까지 인형'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은 올해 전문합창단으로서 기념비적인 정통합창음악공연을 기획한다. 새해 첫 공연은 진취적인 한 해로 시작될 수 있도록 3일 '신년음악회'를 통해 희망을 노래한다. 이어 3월 30일엔 제192회 정기연주회로 웅대하고 화려한 음악의 대명사인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를 광주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합창단 등 다양한 협연자들과 함께 올린다.

광주시립창극단은 올해 정기공연 3회, 기획공연 2회, 특별공연 8회, 찾아가는 예술단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창극단은 올해 첫 공연으로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를 무대에 올린다. '판소리 감상회'는 창극단 단원을 주축으로 국내 명창·명고를 초청해 판소리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공연으로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어 3월10일 북구문화센터에서 봄맞이 기획공연 '신춘'을 공연한다. 창극단 대표 공연레퍼토리에 새로 개발한 공연프로그램을 내세워 다채롭고 특별한 공연을 내세울 예정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첫 시작은 대표 레퍼토리 '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3'이며 객원지휘자를 초청, 3월 23일 공연한다. 5월에는 오월 광주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 메시지로 전달하는 '5·18 기념음악회'를, 6월 28~29일에는 지역 예지 명인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협연의 밤'을 차례로 선보인다. 7월 21~23일에는 많은 국악 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구연동화극 '신나는 국악여행'을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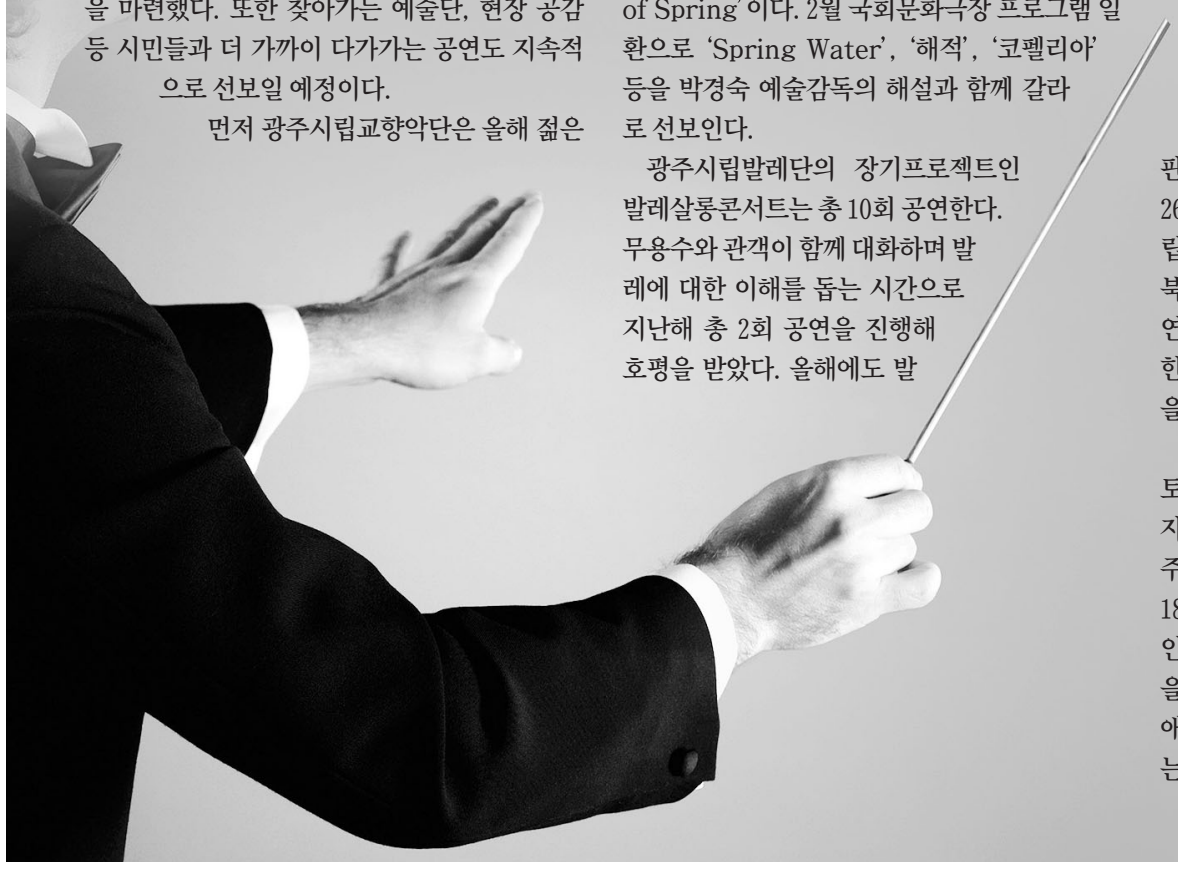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첫 공연으로 5월20일 제138회 정기공연 패밀리 콘서트 시리즈Ⅱ '가족이라는 이름_아버지'를 공연한다. 10월에는 제29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지난해 3회 공연 전석 매진으로 광주시민들에게 동심을 되찾는 시간을 갖게 해줬던 영어오페라 '피노키오' 공연도 12월 1일~2일 다시 선보인다.

광주시립극단은 4월 27일~29일 제2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을 고전명작 시리즈로 선보인다. '벚꽃 동산'은 러시아 작가 안톤 체홉의 유작으로 러시아 귀족사회의 몰락을 묘사한 작품이다. '갈매기', '세 자매', '바냐 아저씨'와 함께 안톤 체홉의 4대 희곡으로 꼽히는 이 작품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최영환 교수가 연출을 맡는다. 8월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을 준비 중이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마술피리', '박하사탕', '토스카' 등 걸작 오페라들과 함께 '찾아가는 오페라',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올 한 해를 오페라를 통한 소통과 공감으로 채울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대표 레퍼토리, 메타버스 게임 형식의 새로운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가 지난해 조기 전석 매진 인기에 힘입어 제12회 정기공연 '콘서트 오페라-마술피리'(7월 7~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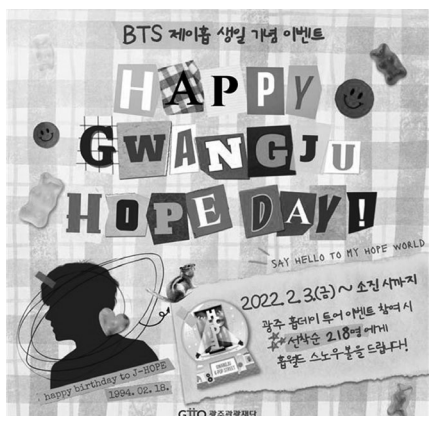
광주시립오페라단의 5·18민주화운동 기념 오페라 '박하사탕'은 2021년 국립극장 개관이래 첫 한국 오페라 공연이자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 오페라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올해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8월 14~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전막공연이 펼쳐진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BTS 제이홉 생일기념 '홉데이' 투어 이벤트

### 광주관광재단, 스노우볼 증정




광주관광재단이 광주 출신 글로벌 스타 BTS 멤버 제이홉의 생일(2월 18일)을 기념해 '광주 홉데이' 투어 이벤트를 연다.

'광주 홉데이' 투어는 3일부터 광주에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 및 BTS 팬덤 대상 선착순 218명에 한해 '홉월드 스노우볼'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참여방법은 광주 K-POP 관광지로 추천된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어 개인 SNS에 인증 후 K-POP 스타의 거리 메타버스 웹에 접속해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광주관광재단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투어 이벤트는 국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대구-제주 초광역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관광 서비스 개발사업'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베타 서비스(공동협력사:㈜유오케이)에서도 광주 K-POP 스타의 거리를 만나볼 수 있어 가상과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홉데이 투어 이벤트 참가자 중 우수 후기 작성자를 선발하여 4월7일 개막 예정인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을 증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광주를 찾도록 연계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는 "'2022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등 광주의 위상을 높인 K-POP 스타 BTS의 멤버 제이홉의 생일을 맞아 제이홉의 발자취를 따라 광주를 찾고자 하는 국내·외 K-POP 팬들이 광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 90년대 시네마테크 활동가 집담회 열린다

### 광주영화영상인연대·ACC
### 내일 오후 광주독립영화관

㈔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3일 '영화광의 기원: 90년대 시네마테크와 우리의 극장'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현재 전시 중인 '원초적 비디오 본색'의 섹션 중 하나인 '꼬뮌들의 연대기'의 확장판이다. '꼬뮌들의 연대기'는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이 한국영화사에 끼친 영향력을 90년대 시네마테크 활동과 연결한 섹션이다.

'씨네필(영화광)'의 기원인 90년대 시네마테크 활동가들의 한국영화사에 끼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한국영화사에서 광주 및 전국 시네마테크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모색함과 동시에 독립예술영화관의 동시대적 의미에 관해 이야기한다. 한국에 수입되지 않았던 세계 예술영화와 정치적 영화들을 비합법비디오로 소개했던 시네마테크는 1990년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민간 자율로 운영됐고 한국영화의 세계화와 민주화를 추동시킨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광주독립영화관을 중심으로 광주 원도심에 위치한 ACC시네마테크, 광주극장을 잇는 광주영화 삼각벨트 구축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의 문화적 가치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참가 신청은 없다.

조영각 프로듀서(영화 돼지의 왕)의 기조발표에 이어 곽용수 인디스토리 대표, 조대영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 김희진 부산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강민구 대전 아트시네마 대표, 이진숙 영화 '밀정' 프로듀서가 패널로 참석한다.

한편,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지난 1월 총회를 통해 이상훈(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예술감독) 이사장을 감사는 김정희 민변 전 광주지부장을 선임하고, 김채희(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조대영(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 오태승(촬영감독), 김형수(광주극장 전무) 기존 이사들과 더불어 유재연(동신대학교 관광일본어학과 교수), 임성열(광주시교육청 장학사, 광주교사영상모임 대표), 민진영(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유성(영화감독)을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출했다. 도선인 기자

## 임방울국악진흥회, 국악교실 운영

### 13일부터 수강생 모집

임방울국악진흥회는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임방울국악교실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판소리시민체험장에서 진행된다.

임방울국악교실은 △판소리 △고법 △민요 △한구무용 △장고 △가야금병창 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강좌별로 20명 수강할 수 있으며 주 1회 2시간 코스다. 수강료는 월 10만원이다. 수강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방문과 전화로 가능하다.

임방울국악진흥회 관계자는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광주시민들의 취미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문의 전화는 062-521-0731~2, 062-670-7989. 도선인 기자